자장면·라면값 인상 서민들 "이젠 뭘 먹나"

국제 밀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밀가루를 재료로 하는 음식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서민층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 운림동의 S 중국음식점은 이달부터 자장면 가격을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500원 올렸다. 다른 중국음식점들이 앞다투어 자장면 가격을 4천원으로 올릴 때도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자장면 가격을 올릴 수 없어서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 주인의 설명이다.

서구 농성동 Y 중국음식점은 자장면 위에 삶은 달걀 반쪽을 올려주던 것을 최근에 없앴다. 밀가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4천원 하는 자장면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최근 가격이 오르면서 사재기 열풍을 몰고 왔던 라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남대학교 인근에 있는 D분식집은 3월 1일부터 라면 가격을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린다. 튀김과 칼국수 등 다른 밀가루 음식도 올릴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밀 수입가격은 2006년 1월에 비해 138%나 올랐다. 밀 국내 소비량은 362만3천t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6천t(2006년 기준)으로 총소비량의 0.2%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 밀 가격이 오르면 국내 밀가루와 밀가루 원료 식품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심이 지난 20일부터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15.4% 인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장로에서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W 중국음식점측은 "밀가루 20㎏ 1포대 가격이 지난해 1만7천원에서 최근 2만8천원까지 올랐다"며 "4천원 하는 자장면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밀가루 가격이 더 올라가면 현재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밀가루를 재료로 하는 과자 가격도 오르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코파이(12개들이 1박스)는 지난해 1월 1천843원에서 올해 1월 2천271원으로 23.2%가 올랐고, 스낵과자 한봉지는 같은 기간 479원에서 568원으로 18.6% 인상됐다.

하지만 밀가루 가격의 고공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밀가루 및 라면가격 등의 인상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8%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은 대략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 2~3개월간 국내 물가의 상승 압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참 김종두 〈7444〉

'신종 마약' 거래 28명 적발

전남경찰청, 필로폰 상습 투약 1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인터넷에서 신종 마약을 사려고 한 백모(27)씨 등 2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석모(31)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백씨 등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서 신종 마약류인 '물뽕'을 사려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판매자 석씨에게 20만~30만원의 돈을 보내 마약을 구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가 팔려고 한 마약은 무색무취로 소다수나 물 등 음료에 타서 마신다고 해서 '물 히로뽕' 또는 '물뽕'으로 불리며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서 성 범죄용에 악용되면서 '데이트 강간약물'(Date rape drug)로도 알려져 있다.

경찰은 또 이날 광주·전남지역 모텔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이모(5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중간 판매책 등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해 소지하거나 구체적인 구매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 생활 너무 설레요"

조선대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조선대학교는 27일 경상대학 이주현관에서 '2008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신입생 50여명 등 모두 2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했다. 이들은 출입국 관련 법규, 학사 과정, 은행·보험 업무 등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조선족인 중국인 이위립(여·24·무역학과 대학원 2학기)씨는 "출입국 관련 법규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새로운 법률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며 "지난해부터 부모님 초청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조선대에 입학한 외국인은 한국어 연수생 64명, 학부 28명, 대학원 68명 등 총 160명이며, 국적별로 중국 학생이 14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9명, 네팔 8명이며 인도와 이집트, 일본 학생이 각 1명씩이다. 신입생을 포함한 전체 조선대 외국인 유학생은 360여명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

수술 받은 산모 숨져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40대 산모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고 숨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께 나주시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오모(40)씨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자 광주 기독교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피고인 자백 들었다' 유죄 보강 증거 안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검찰조사를 받을 때 및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조씨가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A씨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돼 1·2심 재판부는 징역 10월,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최고의 적은 '졸음'

교통사고 사망 원인 41%로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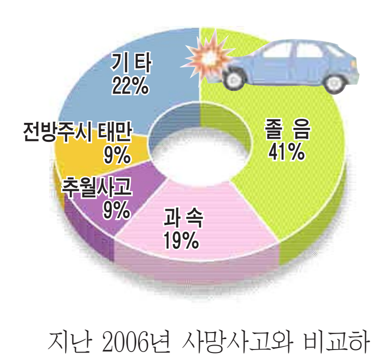
도로공사 호남본부 분석

호남지역 고속도로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원인 중 졸음운전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지역본부 관할 고속도로의 사망사고 32건을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이 13건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과속이 6건으로 19%를 차지했으며, 전방주시 태만과 추월사고가 각각 3건(9%) 순이었다.

■'07년 호남지역 고속도로 사망 원인



지난 2006년 사망사고와 비교하면 타이어파손 등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4건에서 1건으로 줄어든 반면, 졸음운전과 과속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2%와 6.7%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별로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연속 여름휴가철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수요일과 토요일이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고속도로 운행을 위해서는 졸음이 찾아오면 반드시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범행 도구 만들어 아파트 상습 절도

쌍나팔

○…자신들이 만든 범행 도구를 이용해 광주시내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쳐온 전문 절도범이 경찰에 덜미.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조모(51)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같은 혐의로 달아난 공범 오모(41)씨의 행방을 추적 중.

○…조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서구 치평동 J아파트 김모(48)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반지 등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가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순천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1m 길이의 카메라 삼각대에 손전등을 단 범행 도구를 만들어 이를 출입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에 넣는 수법으로 잠금장치를 풀었는데, 경찰에서 "출소 뒤 생계가 막막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